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

민 하 영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이 영 미²⁾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남녀 아동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또래애착의 내적 표상으로 기능하는 부/모애착과 아동 개인의 인지적 내적 특성인 거절예상을 중심으로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애착을 살펴보았다. 자료조사는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의 분석결과 첫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령기 여아의 또래애착은 남아보다 높았다. 둘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모두는 부애착 및 모애착으로부터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모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거절예상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령기 남아 여아 모두, 또래애착은 부애착보다 거절예상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거절예상은 모애착에 비해 또래애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령기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은 거절예상보다 모애착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부/모애착, 거절예상

* 이 연구는 201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2) 교신저자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E-mail : selfdis@hanmail.net)

I. 서론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다. 따라서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관계의 형성은 또래접근이 시작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래접근은 아동이 또래에게 관계 시작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또래의 관계 시작 신호에 아동이 반응함으로써 시작된다. 또래관계에서 또래접근은 또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근간인 또래애착이 클 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또래애착을 발달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인 또래애착은 부모애착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효정, 이귀옥, 2002; Meeus, Oosterwegel, & Vollebergh, 2002). 또래애착과 부모애착에서 언급되는 애착이란 두 사람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이러한 애착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생애 초기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사회적 관계의 청사진으로 기능(Bowlby, 1975)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모애착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애착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정적 관계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

감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지적 표상의 원형으로 작용(Allen, 2008; Bowlby, 1982; Styron & Janoff-Bulman, 1997)함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부모애착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김정내, 임성문, 2007; Amato, 2000)에,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모에 대한 애착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Amato, 2000) 하지만, 부에 대한 애착 중 의사소통 부분은 여아에 비해 높은 것(김정내, 임성문, 2007)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생활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아동은 환경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고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이러한 능력은 아동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기능하면서 아동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자원의 토대가 된다. 청소년기로 전이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특성(Furman & Buhrmester, 1992)을 고려해 볼 때,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학령기 아동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또래관계는 부모애착과 같은 가정환경 특성 외에 아동 개인의 내적 특성에 의해서도 의미있게 영향받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다룬 연구(석주영, 박인전, 2009; 양숙경, 문혁준, 2012)는 대부분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다루고 있을 뿐,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김옥, 이완

정, 2001; 도금혜, 2008; 이시은, 2009; 전효정, 이귀옥, 2002; 홍주영, 도현심, 2002)가 대부분 일 뿐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 외 개인적 특성이 부모애착과 더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사회적 능력, 사회적 지위, 공격성 등 또래관계를 다룬 연구 등에서 부모 양육행동, 부모애착 등 부모관계 변인과 더불어 정서조절, 통제소재 등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을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규명(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애착에서도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부모애착과 더불어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인지적 측면에서 거절예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절예상은 Downey와 Feldman(1996)의 거절민감성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타인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기대나 예상을 의미한다.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이러한 거절에 대한 예상은 타인 회피나 타인 공격 등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기제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Feldman & Downey, 1994). 인지적 평가가 사회적 상호작용 등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Crick과 Dodge(1994)의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목표의 형성, 반응 탐색 및 결정과 같은 일련의 인지 과정에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등 일련의 인지 과정 중 사회적 단서의 해석 즉 타인의 의도에 대한 아동의 해석은 행동적 반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인의 의도와 같은 사회적 단서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또는 적대적 해석이 반드시 부정적 행동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은 타인에 대해 보다 더 적대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녀, 최해림, 2005; Dodge, Pettit, Bares, & Valente, 1995). 이는 타인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해석 또는 평가와 같은 내적 특성이 또래관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또래애착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도 타인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인지하는 거절에 대한 기대나 예상은 타인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경험적 자료는 거의 찾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연구는 부모애착과의 관계 연구 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점증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인 또래애착이 사회적 관계의 원형(prototype)을 제공하는 부모애착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 자신의 거절예상에 의해 영향받는가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 특성이 또래관계 이해 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 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을 남녀 아동으로 각각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 아동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부모애착에서 성별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김정내, 임성문, 2007; Amato, 2000) 외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거절민감성을 나타내 보이는 등 거절예상과 관련된 변인에서도 성별에 대한 차이(유고은, 방희정, 2011; Erozkaz, 2009)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 연구에서 성차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래관계에서 성차가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여아의 또래 애착은 남아의 또래애착에 비해 높으며(김수희, 박성연, 2008; 김정내, 임성문, 2007;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유혜경, 남현우, 2010; Gorrese & Ruggieri, 2012; Laible, Carlo, & Roesch, 2004),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행동 비율이 더 높게 보고(김지현, 박경자, 2009; 심희옥, 2007; 이경혜, 2001; 임연진, 이은혜, 2000; Claes, 1992; Crick & Grotpeter, 1995; McGee, Feehan, Williams, Partridge, Silvia, & Kelly, 1990; Nada-Raja, McGee & Stanton, 1992; Offord & Lipman, 1996)되고 있다. 또래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나 프로그램 개발에서 성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함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남아와 여아의 특성을 고려한 또래애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설정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3)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의 표집 한 초등학교 중 질문지 조사를 허락 받은 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75$)

변인	변인구분	빈도(백분율)
학년	5학년	140(50.9)
	6학년	135(49.1)
성별	남	138(50.2)
	여	137(49.8)
아버지 나이	40세 이하	55(20.0)
	41-45세	164(59.6)
	46세 이상	56(20.4)
어머니 나이	40세 이하	140(50.9)
	41-45세	110(40.0)
	46세 이상	25(9.1)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40(50.9)
	대졸	111(40.4)
	대졸이상	12(4.4)
	결측치	12(4.4)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58(57.5)
	대졸	91(33.1)
	대졸이상	15(5.5)
	결측치	11(4.0)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5학년은 140명(50.9%), 6학년은 135명(49.1%), 남아는 138명(50.2%), 여아는 137명(49.8%)였다. 표집된 자료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부/모애착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

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 개정 한 것(IPPA-R) 중 옥정(1998)이 사용한 부모애착 척도를 이용하였다. 25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애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부모님께 의지한다.' 등의 15개의 정적인 문항과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부모님은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10개의 부적인 항목(역채점)이 부와 모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부와 모 각각 계산되었으며 응답 가능 범위는 각각 25점에서 1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애착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며, 평균(표준편차)은 95.36(15.21)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거절예상

학령기 아동의 거절예상은 Downey와 Feldman(1996)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질문지(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기초로, 박지윤(2004)이 수정 개발하여 제시한 거절예상 문항을 사용하였다. 거절예상 질문지는 교사나 또래와 관계된 12개의 대인 관계 상황에서 기대되는 거절정도로 측정하였다. 12개의 대인 관계 상황은 아동들의 부탁이나 바람 또는 기대가 수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수학시간이다. 선생님이 문제를 몇 문제 내어 주시고 풀어보라고 하셨

다. 문제 중에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반 아이 00에게 선생님 몰래 내가 모르는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반 아이가 나에게 모르는 부분의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줄까?를 '정말 그렇다(1점)'와 '정말 그렇지 않다(6점)'의 6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12-72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을 전공한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인 받은 이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수정 개정본(IPPA-R) 중 옥정(1998)이 사용한 또래애착 척도를 이용하였다.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역채점)의 25문항으로 구성된 또래애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상했을 때 알아 차린다',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보다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을 전공한 전문가 5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인 받은 이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학령기 남녀 아동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임의 표집 한 초등학교 중 질문지 조사를 허락 받은 대구·경북지역 내 6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허락받은 초등학교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이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2회에 걸쳐 질문지 조사를 부탁드렸다. 질문지는 배부된 300부 모두 수거되었으나, 무응답 설문지와 질문에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지 25부를 제외한 총 275부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의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은 .05 미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거절예상 및 또래애착의 문항평균을 살펴보았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5점 척도임을 고려

표 2.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거절예상 및 또래 애착의 문항평균(표준편차)

변인(문항수)	문항평균(표준편차)
부애착(25)	3.81(.61)
모애착(25)	3.86(.60)
거절예상(12)	2.86(.70)
또래애착(25)	3.44(.62)

해 볼 때, 표 2에 나타난 부애착 평균($M(SD)$) = 3.81(.61)과 모애착 평균($M(SD)$) = 3.86(.60), 그리고 또래애착 평균($M(SD)$) = 3.44(.62)은 3 점 이상으로 연구대상 아동이 평균적으로 긍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절예상이 6점 척도임을 고려해 볼 때 거절예상의 평균($M(SD)$)=2.86(.70)은 3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아동이 평균적으로 거절예상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평균을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또래애착 차이

성별 (사례수)	또래애착평균 (표준편차)	t 값
남아(138)	83.30 (15.30)	-2.82**
여아(137)	88.52 (15.42)	

** $p < .01$

분석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 -2.82, p < .01$). 여아의 평균($M(SD)$)은 88.52(15.42)로 남아의 평균($M(SD)$) 83.30(15.30)에 비해 높은 또래애착을 나타냈다.

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남녀 아동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 전에 변인간 상관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의 부애착과 모애착간에 상관관계는 .90 여아의 부애착과 모애착간에 상관관계는 .85를 나타냈다. 독립변인간 상관계수가 .80 이상일 때 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양병화, 200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을 분리하여 부애착과 거절예상, 모애착과 거절예상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부애착(또는 모애착)과 거절예상을 독립변인으로 각각 설정하고 학령기 남아의 또래애착과 여아의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중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각각 확인하였다. 공차한계가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VIF가 10 이하의 수치를 나타낼 경우 독립변인간 다중

표 4. 남아와 여아의 부애착, 모애착, 거절예상, 또래애착 간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 남아 $n=138$ 대각선 위 여아 $n=137$)

변인	부애착	모애착	거절예상	또래애착
부애착	1	.85***	-.39***	.39***
모애착	.92***	1	-.37***	.44***
거절예상	-.47***	-.44***	1	-.42***
또래애착	.56***	.51***	-.64***	1

*** $p < .001$

공선성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는다(양병화, 2002)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부애착(또는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중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을 대상으로 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는 .78, 1.28로 나타났으며,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는 .81, 1.24로 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학령기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을 대상으로 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는 .85, 1.18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계수)는 .87, 1.15로 각

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회귀분석의 기본 요건 충족이 확인됨에 따라 표 5에서 학령기 남아 및 여아의 또래애착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애착과 거절예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 6에서 학령기 남아 및 여아의 또래애착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애착과 거절예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또래애착과 여아의 또래애착은 부애착에 정적 영향을, 거절예상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R^2 = .49$)은 여아의 또

표 5.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중회귀분석

변인	남아				여아			
	또래애착		R^2	$F(df)$	또래애착		R^2	$F(df)$
	B	β			B	β		
상수	81.79				80.88			
부애착	.32	.34***	.49	65.09*** (2, 135)	.29	.27***	.24	20.59*** (2, 134)
거절예상	-.84	-.48***			-.59	-.31***		

*** $p < .001$

표 6.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중회귀분석

변인	남아				여아			
	또래애착		R^2	$F(df)$	또래애착		R^2	$F(df)$
	B	β			B	β		
상수	88.02				72.66			
모애착	.28	.28***	.47	59.60*** (2, 135)	.36	.34***	.27	24.70*** (2, 134)
거절예상	-.90	-.51***			-.56	-.29***		

*** $p < .001$

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R^2 = .24$)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beta = -.48$)의 설명력은 부애착($\beta = .34$)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에서도 거절예상($\beta = -.31$)은 부애착($\beta = .27$)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을 남녀아동에 따라 각각 살펴본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또래애착과 여아의 또래애착은 모애착에 정적 영향을, 거절예상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설명력($R^2 = .47$)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R^2 = .27$)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beta = -.51$)의 설명력은 모애착($\beta = .28$)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에서는 거절예상($\beta = -.29$)보다 모애착($\beta = .34$)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6개 초등학교 5, 6학년 275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을 부/모애착과 거절예상 측면에서 남녀 아동별로 각각 살펴본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아의 또래애착은 남아의 또래애착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옥, 이완정, 2001) 및 여아 청소년이 남아 청소년에 비해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분, 최연실, 2012; 김수희, 박성연, 2008; 유안진 등 2005; 주은지, 2011; Laible et al., 2004)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관계의 도구적 측면보다 관계적(정의적, 표현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님으로 인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또래관계에 보다 더 강한 의미와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의 질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일부 연구(김진경, 유안진, 2002)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지역적 한계(대구·경북지역)와 소규모 표본집단(275명)을 대상으로 연구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관한 성별 효과의 연구는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 모두는 부애착 및 모애착으로부터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 때,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 때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은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 또는 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또래와의 새로운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등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연구(이하경, 이경숙, 박진아, 2007; Gavin & Furman, 1996) 및 생애 초기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이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 Bowlby(1975)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치롭고 신뢰로운 존재라고 파악(O'Koon, 1997; Paterson, Pryor, & Field, 1995)하기 때문에 또래접촉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또래접촉이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남녀 아동 모두 또래애착이 부 또는 모와의 애착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정환경 변인에서 부 또는 모와의 관계 갈등이 높은 아동 또는 애착 관계가 낮게 형성된 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상담이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해 우선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의 영향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높다는 점이다. 남아의 또래애착에서 부애착의 영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학습되는 남성적 사회 관계 기술이 남아의 또래관계 형성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남아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상은 남녀 아동 모두의 또래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격적 행동이 높은 아동이 사회적 단서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서 보다 편향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박정녀, 최해림, 2005; 임연진, 이은해, 2000; Crick & Dodge, 1994; Dodge et al., 1995)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아동일수록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관계 수용 또는 관계 수락을 기대하는 것보다 관계 거절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아동 자신의 인지적 평가 특성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정보 처리이론에서처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의 사회적 단

서의 입력, 해석 등 일련의 인지 과정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력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사회적 관계 내에서 관계 거절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보다 높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보다 신중한 중재 노력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설명력은 남아와 여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또래애착에 대한 부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설명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부애착보다 거절예상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상대적 설명력의 경우 남녀아동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대한 설명력에서 남아는 모애착보다 거절예상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지만 여아는 거절예상보다 모애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또래애착 관계에서 부 또는 모애착과의 관계보다 거절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여아의 경우 또래애착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인 모애착은 사회적 관계에서 평가되는 거절예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 미치는 모애착의 영향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전통

적으로 어머니에게는 관계적 역할(정의적, 표현적 역할)을 기대(Parsons & Bales, 1955)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관계적 역할(정의적, 표현적 역할)에서 형성된 모애착은 궁극적으로 남녀 아동의 또래애착에 큰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상당히 높았다. 이는 거절예상 추가에 따른 또래애착의 설명력 증가가 여아($\Delta R^2 = .07$)에 비해 남아($\Delta R^2 = .21$)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은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보다 상당히 더 큼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beta = .34$)과 거절예상($\beta = -.29$)의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모애착($\beta = .28$)과 거절예상($\beta = -.51$)의 상대적 영향력과 달리 모애착이 거절예상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아의 또래애착에 대한 거절예상의 영향은 남아에 비해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아의 또래애착에서 모애착이 거절예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력 차가 .05정도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여아의 또래애착은 남아의 또래애착과 달리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며 거절예상이 미치는 설명력 역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여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설명변인은 남아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여아의 또래애착에 관한 설명력 높은 독립변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또래애착 관련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 연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학령기 남아와 여아를 대상으로 가정 환경 변인인 부모애착과 개인 내적 변인인 인지적 측면의 거절예상을 중심으로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에 초점을 둬으로써 또래애착 증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탐색했다는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및 독립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거절예상 그리고 또래애착 또는 또래관계를 매개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애착은 내적작동모델로 작동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토콜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모애착은 또래애착이나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프로토콜뿐 아니라 주의, 정보처리, 의사결정과 같은 인지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정녀, 최해림, 2005). 이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인지 특성인 거절예상의 선행변인으로 역할하면서 거절예상을 매개로 또래애착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이해하는데 보다 심도있고 유용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 분, 최연실 (2012). 초등학교의 부모, 교사, 또래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대한가정학회지*, 50(1), 1-13.
- 김수희, 박성연 (2008).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01-113.
- 김 옥, 이완정 (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애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31-40.
-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 학생의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5), 315-344.
- 김지현, 박경자 (2009).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사회정보처리과정: 해석단계와 반응결정단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1), 105-113.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33-150.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아동의 성, 기

- 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박지윤 (2004).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주영, 박인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 가족복지학, 14(2), 29-50.
- 심희옥 (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07-1118.
-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15-130.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혜경, 남현우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 모 애착, 또래애착,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6), 215-238.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1, 51-59.
- 이경혜 (2001).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행동장애 출현율: 연령차 및 성차를 중심으로 -. 정서·행동장애연구, 17(2), 93-116.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이하경, 이경숙, 박진아 (2007).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1(2), 141-155.
- 임연진, 이은혜 (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 전효정, 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주은지 (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낭만 애착. 청소년학연구, 18(4), 141-171.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Allen, J. P. (2008). The attachment system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2nd ed., pp.419-435).

- New York: Guilford Press.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owlby, J. (1975).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Harmondsworth: Penguin.
- Bowlby, J. (1982). *Attachment* (2nd ed. Vol. 1). London: Harper Collins.
- Claes, M. (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 39-55.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Y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47.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avin, L. A., & Furman, W. (1996). Adolescent girls' relationships with mothers and best friends. *Child Development*, 67(2), 375-386.
- Gorrese, A., & Ruggieri, R. (2012). Peer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1(5), 650-672.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McGee, R., Feehan, M., Williams, S., Partridge, F., Silvia, P. A., & Kelly, J. (1990). DSM III

- disorders in a large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11-19.
 - Meeus, W., Oosterwegel, A., & Vollebergh, W. (2002).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5(1), 93-106.
 - Nada-Raja, S., McGee, R., & Stanton, W. (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Offord, D. R., & Lipman, E. L. (1996).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In Anonymous, *Growing up in Canad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pp.119-126).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O'Koon, J. (1997).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image. *Adolescence*, 32(126), 471-482.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76.
 - Styron, T., & Janoff-Bulman, R. (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21, 1015-1022.
- 1 차원고집수 : 2012. 5. 18.
수정원고집수 : 2012.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2. 12. 3.

Father/Mother Attachment, Rejection Expectation and Peer Attachment amongst School-Age Boys' and Girls'

Ha-Yeoung, Min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oung-Mi, Lee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ather/ mo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expectation on school-age boys' and girls' peer attachment.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75 school-age children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using the SPSS PC(15.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chool-age children's peer attachment showed manifestly different results for boys and girls. Additionally, the level of school-age boys' peer attachment was lower than the level of school-age girls'. (2) Both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amongst school-age childr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3) School-age children's rejection expectation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pe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4) The explanatory power of school-age boys' fa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expectation on peer attach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school-age boys' mother attachment and rejection attachment on peer attachment were rather higher than the explanatory power in the case of school-age girls'. (5) School-age children's rejection expectations were more powerful in relation to fath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School-age children's rejection expectations were more powerful in relation to mother attachment for boys but for not girls.

Key words : school-age boys' and girls' peer attachment, father/mother attachment, rejection expectation